

‘국제대회 모범’ 광주U대회... ‘강정호 효과’ 빅리그 도전 붐물

1 야구·축구·농구 도박·뒤틀린 ‘몸살’

2015년 한국 프로스포츠는 도박과 뒤틀린 파문으로 또 한 번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다. 프로야구는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의 주력급 선수들이 거액의 원정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가을 잔치’에 찬물을 끼얹었다. 삼성은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투수 임창용, 윤성환, 안지민을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한국시리즈에 나서지만 결국 5년 연속 우승의 꿈이 좌절됐다. 프로축구는 지난 11월 심판 2명이 경남 FC로부터 유리한 판정에 대한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다른 심판 두 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농구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총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프로 입단 이후에도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 세 명이 제명됐고 입단 이전에 스포츠 도박을 했던 선수 9명에게는 54경기에서 10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2 박인비 LPGA 커리어그랜드슬램

한국여자골프의 에이스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골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박인비는 지난 8월 2015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으로 여자골프에서는 역대 일곱 번째로 5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4개 대회를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2008년 US여자오픈 우승으로 메이저 챔피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인비는 2013년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현 ANA 인스퍼레이션), LPGA 챔피언십에 이어 다시 US여자오픈을 제패했다. 2014년에도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인비는 올해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췄다. 박인비를 비롯해 L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14승을 합작해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 이보미(27)는 JLPGA 투어에서 7승을 올리며 일본 남녀 프로골프 사상 최다인 2억 3000만 엔의 상금을 받는 등 한국여자골프의 위상을 단단하게 다졌다.

3 대한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추진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5년간 따로 살림을 차렸던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하나의 생태계를 꾸리는 방안이 물살을 뒀다.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을 주관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기구 통합은 체육단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 발전의 시너지를 낸다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그러나 1920년 조선체육회로 시작한 대한체육회와 1991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를 합치는 방대한 작업에 진통이 잇따랐다. 통합 완료 시기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고 단체 통합을 내년 3월 27일 이내에 완료하되, 통합 회장 선거는 리우 올림픽 이후인 내년 10월 31일 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종목·시도 단체 통합도 줄을 잇는 등 통합 움직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정대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내년 대통합되면 한국스포츠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4 두산 14년만에 프로야구 KS 우승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14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 5연패를 노리던 삼성 라이온즈를 제압하고 손에 넣은 귀한 트로피다. 두산은 10월 3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7전4승제) 5차전 홈 경기에서 삼성을 13-2로 완파했다. 대구 원정 1차전에서 8-9로 역전패한 뒤 내리 4연승을 거둔 두산은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다. 두산이 한국시리즈 패권을 차지한 건 1982·1995·2001년에 이어 통산 4번째이며 무려 14년 만이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김용우(1983년 해태)·산동열(2005년 삼성)·류중일(2011년 삼성) 감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사령탑(감독대행 포함) 데뷔 첫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단일팀에서 선수와 감독으로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하는 역사를 쓰기도 했다.

5 한국야구, 프리미어12 초대 챔피언

야구 국가대표팀 프리미어12 초대 챔피언은 한국이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지난달 2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전에서 미국을 8-0으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일본과 개막전에서 ‘괴물’ 오타니 쇼헤이에 막혀 영봉패를 당하며 출발은 좋지 않았다. 대만으로 이동한 한국은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멕시코를 꺾은 뒤 오십 년 만에 미국에 2-3으로 졌다. 8강에서 쿠바를 제압한 한국은 준결승전에서 다시 일본과 만났다. 선발투수는 또 오타니였다. 한국은 실속을 다졌지만 오타니의 공은 개막전 때보다 더 위력적이었다. 7이닝 1피안타 11탈삼진 무실점. 일본의 투수 교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오타니의 강속구에 찢쩍대던 한국 타자들은 다른 투수들의 공은 쉽게 쳐냈다. 0-3으로 9회를 맞은 한국은 4-3의 대역전극을 일으켰고 기세를 이어 미국까지 꺾었다.



6 박병호 1200만달러 미네소타행

강정호(28)가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국내 프로야구 출신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 선언이 붐물 터지듯 이어졌다. 강정호는 올 시즌 타율 0.287에 15홈런 58타점으로 기대 이상의 데뷔 시즌을 치렀다. 수비도 메이저리거급임을 증명한 강정호는 시즌 막판 불의의 부상을 당했으나 피츠버그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정호의 활약은 국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지만 메이저리그의 벽은 높았다. 최고의 거포 박병호(29)가 미네소타 트윈스로 이적한 것을 제외하고는 준비가 부족했던 손아섭(27)과 황재균(28)은 미국 진출에 실패했다. 박병호는 1285만 달러의 포스트 계약보다 적은 4년 1200만 달러의 연봉에 합의하며 ‘헐값 계약’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대호(33), 김현수(27), 오승환(33)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섰다.

7 ‘금지약물’ 박태환 자격정지

수영스타 박태환(26)의 금지약물 양성 반응 사실은 박태환 측이 울초 서울 시내 모 병원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 금지약물 검사를 받았고 그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박태환은 피부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고 도핑에 걸렸으며 병원 측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주사를 놨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로 범정 공방으로 번졌고 김씨에 대한 선공판이 17일 열린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범정 다름과는 별개로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소변샘플 채취일 이후 거둔 메달 등도 모두 몰수당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내놨다.

8 광주U대회 ‘저비용 고효율’ 성공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는 역대 최대 규모와 함께 한국이 사상 첫 종합 우승이라는 성적표를 꺼내들어 성공적 개최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불참과 개최 당시 기세를 부린 메르스 등으로 대회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1만2337명에 달하는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역대 유니버시아드 사상 가장 많은 선수단을 기록했다.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오른 것은 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두 번째, 하계 대회로는 처음이다. 일부 인기 있는 경기에만 팬들이 몰리는 등 흥행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 승인액보다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하며 ‘저비용 고효율’ 대회 운영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회식과 폐회식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의 3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는 100억원 남짓의 비용을 들이면서도 호평을 받았다.

9 김국영 5년만에 100m 한국신

김국영(24·광주광역시청)이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썼다. 김국영은 7월 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남자 100m 준결승에서 10초16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0년 자신이 기록한 10초23을 0.07초 앞당긴 한국신기록이다. 김국영은 2010년 6월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31로 고(故)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1979년 멕시코에서 세운 한국 기록 10초34를 31년 만에 바꿔냈다. 준결승에서는 10초23을 기록하며 한국 기록을 더 단축했다. 그는 꾸준히 10초3대의 기록을 내며 한국 남자 100m에서 1인자의 자리를 지켰다. 김국영은 탈수 증상에 시달릴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했고, 그로써 바란던 10초1대의 기록을 실전에서 세웠다. 올림픽 기준 기록도 통과한 그의 목표는 “리우 올림픽에서 또 한국신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10 FIFA 회장 도전 정몽준 6년 징계

111주년을 맞은 FIFA가 ‘축구 발전의 온상’에서 ‘축구 부패의 온상’으로 추락했다. 지난 5월 27일 스위스 당국은 미국 사법 당국과 공조해 FIFA 고위급 간부 7명을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선정과정에서 돈세탁과 신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만 1억 달러(약 1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된 제프 블라터 회장은 FIFA 총회에서 5선에 성공했지만 들끓는 비난의 목소리 때문에 당선 나올 만에 사퇴를 선언해야 했다. 또 5명의 FIFA 전·현직 집행위원을 포함한 16명의 관리가 새로 기소됐다. 이 여파로 FIFA는 최근 14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적자 위기에 빠졌다. ‘블라터 대량마’로 회장 선거에 도전한 정몽준 FIFA 명예 부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6년 징계를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다.